

# 이재명 대표 일반병실 옮겨 회복 치료...“절대안정 필요”

### “초기 매우 위험한 상태, 천운이 목숨 살려...당분간 면회 불가” 부상은 열상 아닌 자상...민주당 “가짜뉴스 엄중한 법적조치”

테러를 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이틀째 회복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내경정맥 손상을 입어 부산대병원에서 응급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돼 2시간 가량 혈전 제거를 포함한 혈관 재건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지에서 “이 대표가 오늘 오후 5시 병원 지침에 따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옮겨졌다고 한다”며 “당분간 면회할 상황이 안돼서 면회는 안 받는다”고 밝혔다.

민주당 영입인재이자 홍보외과 전문의 출신 강정희 전 대한의사협회 상근 부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대병원에서 이 대표 상태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회복하고 있으나 당분간 절대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부회장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약간의 물만 먹고 있고 항생제와 진통제 등 회복을 위한 약물을 정맥에 투여중”이라며 “지표 검사는 양호한 편”이라고 전했다.

그는 “의무기록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대표는 초기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였었고 천운이 목숨을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절대안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식 이후 많은 양의 출혈이 발생한 것이라 중요 장기에 대한 후유증이 우려돼 향후 예후 관찰이 더욱 필요하다”며 “일반 병실로 옮겨도 당분간 접근을 자제하고 치료에 집중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식 기간 중 주요 장기에 피 검사로 드러나지 않는 손상이 있었을 수도 있다. 다량의 출혈이 동반될 때 앞으로 나타날 후유증은 의사도 예측이 어렵다.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전 부회장은 또 “내경정맥 둘레 60%가 손상된 심각한 부상으로 흉쇄유돌근 곳곳에 혈종 덩어리가 존재했다”며 “예초 알려진 바와 달리 정맥 출혈뿐

아니라 관동맥 근육 측에 분포하는 경동맥의 작은 혈관에서도 다수의 활동성 출혈이 확인돼 헤모클립이라는 지혈도구로 지혈했다”고도 전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목 부위에 1.5cm가량 열상을 입었다는 발표와 관련해 “이 대표의 부상은 열상이 아닌 ‘자상’”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부회장은 “일각에서 열상이라고 보도되는데, 이는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열상은 피부 상처인데 환자에게선 피부를 지나 좌측 흉쇄유돌근, 즉 피하지방 및 근육층을 모두 관통해 내경정맥에 9mm 이상의 깊은 상처, 즉 자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깊이 찢어져 난 상처이기엔 경정맥 봉합 수술을 했다. 따라서 자상이라는 표현이 맞다”며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열상을 자상으로 정정해 보도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테러 협박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조치도 예고했다.

박 대변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이 있는데 추적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극우 유튜브가 가짜뉴스를 이야기하는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도 할 것”이라고 했다.

피의자에 대한 당적 논란이 정치권 안팎에서 일자 경찰은 이날 피의자의 당적 확인을 위해 정당법에 따라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당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당원명부를 비교해 김씨의 당적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 피습과 관련한 대책을 논의한 뒤 채택한 입장문에서 “정치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나 축소, 왜곡 시도가 일어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의원총회를 마치고 당 대표 피습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익표 “김건희 특검 거부 시 모든 법적 조치 검토할 것”

### “北 김정은 적대적 교전 언급 유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일 김건희 여사 추가조사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법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거부권(재요구권) 행사를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을 비롯한 쌍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 시 중대한 국민적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민약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

주당은 모든 법적 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며 “이미 12월 중순에 권한쟁의심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겐 묻는다”며 “법 앞의 예외가 없다는 당신들의 원칙은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은 예외인지 다시 한번 묻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적 교전국’ 관계로 규정할 것을 언급하며 “김 위원장과 북한 당국에 매우 유감스럽다”며 “김 위원장은

다시 한번 한반도 평화에 대한, 통일에 대한 역대 지도자들의 노력을 외면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 관계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다시 한번 대북 정책을 포함한 안보 정책이 있어서 야당과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길 요청한다”며 “특정 정파에 의한 대북정책이 아니라 국가적 통일 정책, 대북 정책 그리고 대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민주당과 협의했다면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이재명 대표 급습 60대 자택·차량 등 압수수색

### “17cm 등산용 칼 범행 직전 개조”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찔른 피의자 김모(67) 씨의 충남 아산 자택과 직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1시 30분께 수사관 25명을 보내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김씨가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김씨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같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목적이 범행 증거 자료나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보라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지켜본 공인중개사 사무소 건물의 주인은 “경찰이 1시간 30여분간 압수수색을

했고 컴퓨터 외에도 서류와 개인 문서를 샅샅이 살펴본 것 같았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3일 김씨가 이 대표를 급습할 때 사용한 흉기는 길이 17cm, 날 길이 12.5cm 크기의 등산용 칼이었고 손잡이 부분이 테이프로 감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김씨가 범행을 위해 사전에 흉기를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씨 동선도 조급식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인 1일 오전 부산에 도착했다가 울산으로 간 뒤 범행 당일인 2일 오전 부산에 온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경남과 부산 등을 순회하는 이 대표 방문지를 따라다니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에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김의장-여야 원내대표 이태원특별법 합의 불발

### 野 추진 국정조사 놓고도 대립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3일 회동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쟁점 사항 등을 조율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 윤재욱·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김 의장 주재로 약 50분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뒤 기자들에게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전하면서 오는 5일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5일에 다시 만나 더 얘기하기로 했다”고만 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 의장 중재안으로 이견이 좁혀지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니다. 아직 말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9일까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특별법안을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법안은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로, 민주당 등 야4당 주도로 지난 6월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검 요구 조항을 빼고 법 시행 시기를 총선 이후로 미룬다’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여야 합의의 처리를 주문한 상태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돼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특별법의 초점은 진상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 구성만큼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해병대 체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3건의 국정조사를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31120-중-161682호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무릎 인공관절 수술 고민될때!  
첨단우리병원 원장님과 상의하세요!!

첨단우리병원  
전화 문의 062)970-6000  
광주과학기술원 첨단 쌍암공원 앞 위치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칼라강판 지붕공사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광역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광역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